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워싱턴 D.C의 내셔널 몰 풍경. 워싱턴 모뉴먼트와 의사당 사이에 펼쳐진 125만㎡의 광장에는 링컨 기념관, 제퍼슨 기념관, 스미스 소니언 인스티튜션, 워싱턴 국립미술관 등이 한데 어우러져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워싱턴 =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대통령기념관·박물관 즐비 미국의 ‘문화 심장’

## 미국 대통령기념관에서 배운다

### ‘김대중 기념관’ 글로벌 명소로

#### (2) 워싱턴은 역사교육의 메카

워싱턴 = 박진현 문화예술 선임기자

지난 13일 기자일행이 찾은 워싱턴 D.C는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인파로 넘쳐났다. 마치 도시 전체가 축제의 열기에 흥분 빠진 듯 들떠 있었다. 그중에서도 심장부에 위치한 내셔널 몰(National Mall)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한해 이 곳을 찾는 관광객이 2500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특히 이 날은 봄방학을 맞아 미 전역에서 수학여행 온 초·중·고등학생들의 단체행렬이 눈에 많이 띄었다. 학교별로 각양각색의 티셔츠를 맞춰 입은 학생들 때문에 도시는 산뜻하면서도 생동감이 흘렀다.

내셔널 몰이 사람들의 발걸음 북적이는 이유는 미국의 역사와 문화를 볼 수 있는 생생한 현장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에게 내셔널 몰은 그 어떤 교과서 보다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산실이다. 학생들은 내셔널 몰 일대를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역사공부를 배운다.

워싱턴 D.C는 피에트 샤를 랑방이라는 프랑스 출신의 건축가가 설계해 만든 계획도시다. 도시 전체가 방사상과 바둑판 눈금 모양으로 잘

서정원하게 구획돼 인위적인 분위기가 강하다. 링컨기념관과 의사당 사이에 펼쳐진 125만㎡의 내셔널 몰 양쪽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연사박물관, 워싱턴 국립미술관, 항공우주박물관, 미국역사박물관 등 대형 박물관들이 배치돼 있다. 이들 미술관 덕분에 삭막한 광장에 문화의 향기가 연중 흐른다.

하지만 내셔널 몰의 노른자 위에는 링컨기념관, 워싱턴모뉴먼트(조지 워싱턴 대통령 기념탑), 의사당 등 역대 대통령을 상징하는 건축물들이 일직선으로 늘어서 있다. 워싱턴 모뉴먼트는 관광객들의 옷깃을 여미게 하는 워싱턴 D.C의 랜드마크다. 지난 1884년 건국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을 기리기 위해 고대 이집트의 오벨리스크를 본떠 168m 높이로 세웠다. 몇 블록만 벗어나면 백악관, 제퍼슨기념관 등 워싱턴의 관광명소가 내셔널 몰을 중심으로 이웃해 있다.

미국이 내셔널 몰에 워싱턴 모뉴먼트를 비롯한 대통령 기념관과 박물관을 집중배치한 이유는 미국의 역사와 대통령들의 업적을 전파하는 교육의 메카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워싱턴 모뉴먼트 위에는 기다란 직사각형 연못이 있다(아쉽게도 현재는 공사중이어서 물을 볼 수 없었다). 회상의 연못(Reflecting pool)으로 불리는 이곳은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반전시위를 벌인 배경으로 유명해졌다. 회상의 연못을 조성한 이

유는 연못 왼쪽에 베트남전 전몰자 위령비가 조성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한국전쟁 전몰자 위령공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 가운데에서도 스미스소니언 인스티튜션 산하 미국역사박물관(National Museum of American History)은 지난 1964년 ‘아예 작정하고’ 미래 세대들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건립했다. 미국의 역사와 정치, 과학, 문화 등을 일목요연하게 알고 싶은 관광객이나 학생들이 빠지지 않고 들르는 필수코스다. 한해 방문객만 4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미국역사박물관은 오늘날 세계 최강국으로 우뚝 선 미국의 저력이 어

한게 등을 영상과 사진,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꾸며 교육과 오락을 동시에 제공한다. 특히 이곳에선 1972년 6월 닉슨대통령의 재선을 획책한 선거운동원이 워터게이트호텔 객실의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 도청장치를 설치하려 망가뜨린 철제책상도 만날 수 있다. 대통령의 감추고 싶은 ‘과거’도 과감히 보여주는 용기가 인상적이다.

또한 퍼스트레이디 전시실에는 역대 대통령 취임식날 입었던 화려한 드레스와 백악관에서 즐겨 사용했던 주방용품, 심지어 대통령과 주고 받았던 연애편지까지 전시돼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든다. 역사와 문화를 적절히 활용한 콘텐

#### 내셔널몰 둘러보면 역사공부 절로

#### 관광객 연간 2500만명 몰려 활기

디에서 연유했는지 그 뿌리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소장품이 300만 점에 달한다고 하니 ‘깊이’를 짐작케 한다. 1865년 4월14일 링컨 대통령이 포드극장에서 암살 당할 당시 썼던 모자와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빌리진(Billie Jean)’을 부를 때 착용했던 모자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다.

무엇보다 미국역사박물관이 학생들의 현장학습으로 인기가 높은 것은 미국 역대 대통령의 업적뿐 아니라 과오, 퍼스트 레이디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품들이 많기 때문이다.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에서부터 현 오바마 대통령의 일대기와 대통령의 권한, 역할,

트로 자칫 딱딱할 수 있는 박물관을 에듀테인먼트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점이 흥미로웠다.

국립공원국(National Park Service)의 마이클 로저는 “내셔널 몰은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식이 열린 역사의 장소이자 워싱턴 D.C 시민들의 문화휴식처”라면서 “매년 미국 전역 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관과 미술관, 박물관 등이 어우러져 새로운 복합문화관광장으로 변신한 내셔널 몰. 자칫 그저 그런 회색도시에 불과했을 미국의 수도를 전 세계인들의 관광명소로 키워낸 최고의 문화브랜드다.



미국역사박물관의 대통령 전시실에서 관람객들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자료를 둘러 보고 있다.



워싱턴 D.C의 미국역사박물관과 링컨 기념관 등에는 봄 방학을 맞아 미 전역에서 수학여행 온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사계절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가족과 함께하는 나들이가 즐거운 계절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가 함께하는  
정음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정음으로 오세요!

내장산의 벚꽃

옥정호 여름

김동수 가을

내장호의 봄